▌일반논문 ▌『로컬리티 인문학』30, 2023. 10, 143~174쪽 http://dx.doi.org/10.15299/tjl.2023.10.30.143

한국전쟁기 소개민(疏開民)들의 장소 경험
- 통영시 한산면 용초 사람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박정석*

| 국문초록 |

한국전쟁기 한산면 용초 마을에 '용초도 포로수용소'가 설치되면서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왔던 주민들은 강제로 소개되었다. 자기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소개민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강제로 소개되면서 삶의 터전과 생계 수단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군사적 폭력 혹은 법적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쫓겨난 주민들에게는 '소개민'이라는 상처를 주는 호명과 함께 국가로부터 경제적 폭력이 가해졌다. 소개라는 형태의 제도적 폭력은 주민들의 자족적 삶을 박탈하고 일상을 불안정성의 영역으로 내몰았다. 소개민들은 장소 상실과 장소 이동을 겪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장소 경험을 하였다. 포로수용소가 건설되면서 해체되었던 장소를 재구성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겪었던 주민들의 경험과 기억은 다층적이면서도 서로 중첩되어 있다. 지금까지 전쟁 기억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한편으로는 국가가 만들어 내는 공적 기록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들의 경험이 축적된 사적 기억에 치중되어 있다. 공적 기록과 사적 기억은 중첩되기도 한다. 단지 한쪽은 기록되었기에 역사가 되었고, 다른 한쪽은 기록되지 않았기에 망각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주요어: 한국전쟁, 용초도 포로수용소, 용초 마을, 소개민, 장소 경험

* 목포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hansan721@mokpo.ac.kr)

| 차례 |

1. 들어가는 말
2. 강제로 쫓겨난 사람들
3. 소개민으로 살아가기
4. 마을 복귀와 장소 재구성
5. 포로수용소 흔적을 기념의 장소로
6.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1952년 6월 '용초도 포로수용소'가 설치되면서 소개(疏開)되었던 한산면 용호도[1] 용초 마을 출신 주민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이들의 장소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2] 용초 주민들은 1952년 6월 포로수용소 설치와 함께 마을에서 쫓겨나 1954년 3월 말 포로수용소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소개민으로 살았다. 포로수용소 폐쇄 이후 소개민 신세에서는 벗어났지만, 포로수용소를 건설하면서 뭉개졌던 전답을 일구고 집과 마을을 다시 만드는 고된 생활이 이어졌다. 1960년대에 이르러 마을은 헝클어진 공간에서 비로소 온전한 장소로 자리를 잡았다. 이후 포로수용소의 흔적은 주민들의 기억과 일상에서 멀어졌다. 1990년 용초도 포로수용소 흔적과 소개민 경험이 한 언론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지만,[3]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2010년대부터 지방정부 주도로 그간 폐허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포로수용소 유적을 '발굴'하여 문화적 기념의 장소로 전환하려 노력하고 있다.[4]

1) '용초도'는 2018년 '용호도'로 섬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2) 본문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요 자료는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한 구술자료이다. 용초 마을을 포함하여 통영 지역에서 세 차례(2019.06.22.~06.26., 2019.12.19.~12.28., 2021.01.11.~01.12.)에 걸쳐 현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보완 조사를 하였다.
3) 오연호, 「특별포로수용소 용초도」, 『월간말』 90(9), 1990.

용초 마을 사람들은 포로수용소가 설치되면서 이웃 섬으로 강제로 소개되었다. 주민들은 소개를 나갈 지역은 물론 마땅한 거처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쫓겨났다. 소개된 주민들은 스스로 거처할 곳을 마련해야 했다. 사전적으로 '소개'는 시설물이나 사람을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강제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이동시켜 재배치하거나 분산하는 군사적 또는 행정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개민은 일정한 곳에서 소개되어, 비자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을 뜻한다. 한국전쟁 당시 한산면 용초 마을은 공습이나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는 전장(戰場)이 아니었지만, 포로수용소 설치로 토지와 가옥이 징발당했으며 주민들은 강제로 소개되었다. 소개라는 형태의 제도적 혹은 군사적 폭력은 주민들의 자족적 삶을 박탈하고 일상을 불안정성의 영역으로 내몰았다.[5] 전시에 집의 상실과 파괴는 곧 삶의 터전 박탈과 공동체 붕괴를 의미하였다.[6]

포로수용소를 설치하려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안정적인 장소였던 마을은 위협적인 공간으로 전환되었다.[7] LST(Landing Ship Tank, 전차상륙함)에서 마구 쏟아져나온 불도저들이 무질서하게 종횡으로 휘젓고 다니는 동안 정적이었던 마을은 위험한 건설 현장으로 바뀌었다. 미군은 집과 마을을 허물고 포로수용소를 설치한 다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실하게 드러냈다.[8] 새로운 공간은 철조망과 울타리로 경

4) 신승현, 「한국전쟁 포로와 기억의 정동 공간: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용호도 포로수용소 폐허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57쪽.
5) 박탈은 "사람들이 자신의 터전과 시민권, 생계 수단을 잃어버리거나 군사적 폭력 혹은 법적 폭력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때 생겨나는 어떤 현상"이라고 정의된다. 버틀러, 주디스 & 아테나 아타나시오우, 『박탈』, 김응산 옮김, 서울: 자음과 모음, 2016, 21~22쪽.
6) 김예림, 「전쟁, 소유, 박탈」, 『동방학지』 19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1.
7) 학문적으로 장소(place)는 공간(space)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장소와 공간의 구분은 장소감의 존재 여부로 판단된다. 낯선 공간일지라도 사람들이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곳과 친연성을 갖게 되면 그곳은 장소가 된다. 투안, 이-푸, 『공간과 장소』, 구동회 · 심승희 옮김, 서울: 도서출판 대윤, 2005, 19쪽.
8) 장소는 기본적으로 '권력의 맥락에서 의미가 부여된 공간'이며, 경계를 규정하는 권력관

계가 구분되었다. 포로수용소가 설치되면서 쫓겨난 소개민들은 먼저 가까운 친인척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 다시 안정적인 거처로 옮기거나 소개민 수용소로 들어갔다. 소개민들의 신체는 소개민 수용소에 예속되었다. 이처럼 소개된 사람들의 삶은 이동의 연속이었다.[9] 장소 이동은 이곳에서 저곳으로의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10] 친숙한 감정과 경험이 없는 장소, 거주지임에도 유대감이 구축되지 않는 장소는 장소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소개민들이 잠시 체류했던 장소와 소개민 수용소는 일종의 '무장소'였다.[11]

용초도 포로수용소는 원래 '적군' 포로를 가두었던 포로수용소였지만, 포로교환 이후에는 국군포로 귀환집결소라는 이름으로 '아군' 포로를 이곳에 수용하였다.[12] 1954년 3월 용초도 귀환집결소(포로수용소)가 해체되면서 주민들은 마을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곳은 과거의 익숙한 장소가 아니었다. 장소의 경계는 허물어졌고, 기억 속의 장소는 희미해졌다. 기억의 장소에서 실천의 장소를 복원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주민들은 가장 먼저 삶의 구심점이자 중심인 집을 지었다.[13] 집이 세워지면서 마을이 구성되고, 집과 집 그리고 집과 마을이 연결되었다. 마을의 복원은 경계선과 근거지 설정, 주민들

계를 통해 장소가 만들어진다. 크레스웰, 팀, 『장소』, 심승희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2, 19쪽. 맥도웰, 린다, 『젠더, 정체성, 장소』, 파주: 도서출판 한울, 2011, 25쪽.

9) 장소가 멈춤이라면, 공간은 움직임을 의미한다. 투안, 앞의 책, 20쪽.

10) 크레스웰, 팀, 『온 더 무브』, 최연석 옮김, 서울: 도서출판 앨퍼, 2021, 22쪽.

11) 랠프, 에드워드,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 김현주 · 심승희 옮김, 서울: 논형, 2005, 290쪽.

12) 1953년 8월 용초도 포로수용소의 '친공포로'들을 북으로 송환하였지만, 곧바로 귀환 국군포로들을 이곳에 수용하였다. 1953년 8월부터 1954년 3월까지 귀환 국군포로 7,848명을 수용하여 이들을 심문하고 재교육하였다. 1953년 8월 5일 인천항에서 출발하여 용호도로 이송된 인원 총 7,854명이었지만, 같은 해 11월 심문 대상 인원은 7,848명이었다. 6명은 수용 도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측된다. 심문 결과 1,481명은 귀향, 5,644명은 재입대, 564명은 군사재판 회부였지만 67명만 재판에 회부되고 나머지는 석방되었다.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냉전평화센터, 『통영 추봉도와 용호도 포로수용소 종합정비계획 수립 최종보고서』, 2022, 58쪽.

13) 주택은 모든 관계가 시작되는 장소이자 연결점이며, 사회적 위치와 지위의 구체적인 표식이다. 맥도웰, 앞의 책, 165쪽.

간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위치 정하기, 그리고 역사 만들기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14] 하지만 경계선과 근거지 재설정은 애로 사항이 많았다. 무엇보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았다.

마을 복원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포로수용소 설치와 소개민 생활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자 장소를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졌다. 하지만 장소에 대한 기억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선별적으로 채택된다.[15] 현재의 시점에서 기억하는 과거의 장소는 친숙함과는 거리가 멀다.[16] 용초도 포로수용소의 유적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과는 괴리되어 있다. '기억의 장소'로서의 포로수용소 유적은 곳곳에 설치된 안내판을 통해 '관람자'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를 '지시'한다. 포로수용소라는 '과거'는 개인적 기억 혹은 집단적 기억을 넘어 시나브로 문화적 기억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17] 문화적 기억으로서의 용초도 포로수용소는 단지 장소를 통해 과거와의 유대를 활성화할 뿐 조형물이나 그림과 같은 상징물은 물론 제의 혹은 축제와 같은 대중적 행사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한편, 전쟁 소개민의 경험과 기억은 최근까지 학문적 관심사 밖에 있었다.[18] 포로수용소 소개민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14) 장소는 일상적 토대 위에서 틀에 박힌 활동으로 보이는 반복을 통해 생산된다. 크레스웰, 앞의 책, 2012, 126~127쪽.

15) 장소의 의미와 경계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수정 혹은 재수정되거나 추가되기도 한다. 개별 장소는 기억과 불가분의 관계 있다. 장소가 기억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기억이 특정한 장소 안에 고착되어 있을 수도 있다. 윤미애, 「문화적 기억의 공간과 서울이야기」, 『카프카연구』 17, 한국카프카학회, 2007, 229쪽.

16) 기억하는 과거는 생생한 체험이 아니라 낯섦을 수반한다. 로웬덜, 데이비드, 『과거는 낯선 나라다』, 김종원 · 한명숙 옮김, 서울: 개마고원, 2006, 13쪽.

17) 아스만, 알라이다, 『기억의 공간』, 변학수 · 백설자 · 채연숙 옮김,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16쪽.

18) 김민환, 「전투사 중심 재현을 넘어선 한국전쟁의 대안적 전시: 〈전쟁 포로, 평화를 말하다〉와 〈허락되지 않은 기억〉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32, 한국사회사학회, 2021, 231쪽.

나타나기 시작하였다.[19] 2018년 12월 5일부터 2019년 1월 17일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전쟁 포로, 평화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전시한 내용물 중에 소개민과 관련된 자료가 등장하였다. 이 전시를 통해 포로수용소 건설로 집과 논밭을 징발당한 채 강제로 소개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전시된 사진들 가운데 포로수용소를 건설하면서 마을을 불태우는 모습과 소개민 수용소를 설치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 있었다. 또한 국가를 대상으로 봉암도 포로수용소 건설로 징발되었던 토지와 농토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던 문서도 함께 전시되었다.[20] 하지만 전체 전시에서 소개민은 전쟁포로의 부차적인 주제였다.

2. 강제로 쫓겨난 사람들

1952년 6월 7일 미해군 수중 폭파팀이 용초 마을 해변에 나타나 해안 지형을 조사하였지만, 당시 주민들은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6월 9일 미군 건설공병대대 한국 근무단(미8군 지원단)이 용호도에 도착하였다. 6월 16일부터 용초도 포로수용소 건설 공사를 시작하여 9월 22일 기본 건설 수용동 및 기반 시설이 최종 완료되었다.[21] 하지만 포로수용소 시설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기 2개월 전인 1952년 7월

19) 소개민 연구는 한국전쟁 연구 동향에서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학문적으로 소외된 분야이다. 김태우, 「한국전쟁 연구 동향의 변화와 과제, 1950~2015」, 『한국사학사학보』 32, 한국사학사학회, 2015. 포로수용소 소개민과 관련된 문헌자료는 오연호, 앞의 글; 이승철, 『6.25전쟁과 그때 그 시절』, 거제: 거제향토사연구소, 2018; 거제문화원향토사연구소, 『한국전쟁 65주년 거제도 피난민 유입과 소개: 문헌 수집 및 구술사업』, 2015.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전갑생 · 김민환, 「포로수용소의 설치 및 해제와 주민들의 고통: 제주 · 통영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58,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2018.이 있다.

2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쟁 포로, 평화를 말하다』, 2018, 55~58쪽.

21) 냉전평화센터, 앞의 자료, 55~56쪽.

말부터 포로들이 수용되기 시작하였다.[22] 용초도 포로수용소는 3개 구역 24개 수용동에 총 100여 개의 막사가 설치되었다. 포로수용소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으며, 구역마다 똑같은 모양을 한 막사들이 총총히 배치되었다. 막사는 처음에는 야전 천막이었다가 나중에 시멘트로 개조되었다.

용초도 포로수용소의 공식 명칭은 '유엔 거제도 제1수용소 분소 용초도 제1B 포로수용소(UN Prisoner of War Branch No. 1B Camp)이다. 공식적으로는 1952년 6월 19일에 설치되어 1953년 8월 5일까지는 인민군 포로수용소로, 이후 1954년 3월까지는 국군 포로들이 수용되었다.[23] 용초도 포로수용소는 미군과 국군이 함께 경비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포로수용소의 경비 인력은 수적으로는 국군이 미군보다 월등히 많았지만, 실제 포로 관리는 미군이 주도하였다.[24] 군사 장비와 중요 시설물은 미군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국군은 미군의 보조 역할에 그치고 있었다.

포로수용소 설치 이전 용초 마을은 큰몰(큰 마을)과 작은몰(작은 마을 혹은 제싯골)이라는 두 개의 자연 마을로 구성되어 있었다. '몰'은 마을을 일컫는 토박이말이다. 마을 중앙 등성이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제싯골이 서쪽에는 큰몰이 자리 잡고 있다. 포로수용소 시설이 들어설 구역의 경계를 따라 철조망을 친 다음, 농토와 거주지를 모두 밀어 버리고는 그곳에 건물을 설치하였다. 100여 채의 가옥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미군이 파괴한 마을은 낯선 이름의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작은몰은 포로수용소 '제1구역', 큰몰은 '제2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마을 너머에 있는 큰논골은 '제3구역'이라는 기호가 부여되었다.[25] 작은몰 왼쪽 언덕배기에는 수용소의

22) 1953년 2월 기준으로 용초도 포로수용소에는 인민군 장교 출신 포로 8,012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서울: 선인, 2010, 273쪽.

23) 전갑생, 「해제: 한국전쟁기 전쟁포로수용소와 문서의 역사적 의미」, 『거제근현대문헌총서 VI: 거제도포로수용소 중요문서』, 2016, 14쪽.

24) 1953년 2월 기준으로 용초도 포로수용소의 경비 인력은 미군(행정요원 포함) 227명, 카투사 51명, 한국군 856명이었다. 조성훈, 앞의 책, 273쪽.

25) 공간과 장소에 명명된 이름은 개인과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장소 애착'으

소장을 비롯한 장교용 막사와 중요 장비를 보관 관리하는 관리동 건물이 들어섰다. 작고 낮은 초가집이 대부분이었던 마을에 거대한 시설물과 막사가 건립되고, 초소마다 가로등이 설치되면서 시가지를 방불케 하였다.

구술자들은 보리타작이 한창이었던 1952년 5월(음력) 무렵 미군이 몰려왔다고 기억하였다. 그때는 보리를 베고, 베어 온 보리를 타작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였다. 난데없이 마을 해안에 불쑥 나타난 '섬 덩치만 한' 함정이 쏟아낸 불도저와 트럭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 혼비백산하였다. 미군들은 마을 주민들을 집에서 쫓아내어 임시 천막으로 내몰았다. 집을 비우는 즉시 미군들이 불을 질러 태워버렸다. 미군의 성폭행을 우려한 마을 아낙네들은 밤이 되면 이웃 마을로 피신했다가 날이 밝으면 마을로 들어와 남아 있는 식구들을 위해 밥을 짓고 이중생활을 하였다. 이런 상황이 여러 날 계속되자 주민들은 아예 몸 파는 여자를 마을로 데려와 미군을 상대하게 하였다. 몸 파는 여자들은 미군의 호위 아래 '합법적'으로 마을로 드나들었다. 하지만 곧이어 포로수용소에 포로들이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몸 파는 여자들의 출입이 금지되었다.[26]

한편 강제로 쫓겨나게 될 위기에 처하자 마을 주민들은 마을 대표자를 통해 국방부에 항의하였다. 당시 마을 대표였던 전 면장 김석계는 국방부를 찾아가서는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용호도에 포로수용소 설치를 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캐묻고는 소개 이후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국방부 당국자의 답변은 용호도가 무인도인 줄 알았다는 터무니 없는 변명뿐이었다. 무인도로 알고 있었다는 섬마을의 이장에게 서면으로 문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핑계였다.

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름이 없는 장소 혹은 타인이 붙여 놓은 기호로 표시되는 장소는 그저 혼돈의 공간일 뿐이다. 랠프, 앞의 책, 56쪽.

26) 오연호, 앞의 글, 128쪽.

"용초도는 무인도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오. 당국에서 용초도 이장에게 사람이 살고 있는가를 사전에 서면으로 문의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소. 그래서 당국에서는 무인도이고 물이 좋은 용초도를 포로수용소로 결정한 것이오."[27]

주민들의 구술에 따르면, 포로수용소 설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미군이 몇 차례에 걸쳐 용초 마을 앞 바다의 수심을 점검하고 마을 내 식수원을 파악하였다고 하였다. 미군이 보트를 타고 와서는 '물옷'을 입고 잠수하면서 해저지형을 조사하였다. 이후 포로수용소를 건설하기 위해 먼저 장비를 실은 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임시 부두가 마련되었다. 함정에서 나온 차량에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차들만 줄을 지어 올라왔다고 한다. 함정에서 내린 불도저들은 곧바로 밭과 들을 뭉개기 시작하였다. 길을 만들고 집 앞 논바닥에는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헬기장 옆에다 천막을 쳐 놓고 군인들이 그곳에서 기거하였다. 천막과 조금 떨어진 소나무 숲 아래 마련된 텐트는 식당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아이들이 식당 가까이 모여들면 군인들이 우유를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아이들은 우유를 얻어먹는 재미로 식당 주변에서 얼쩡거리고 다녔다. 한 구술자는 어디에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피신'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기억하였다. 선박을 소유했거나 선박을 소유한 친인척이 있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일찍 짐을 정리하여 마을을 떠났다.

포로수용소 건설은 집과 마을의 파괴로 이어졌다. 집과 마을은 단순한 물리적 건축물이나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과 관련된 의미와 그들의 애착이 담겨 있는 장소이다.[28] 집과 마을의 파괴는 이들과

27) 오연호, 앞의 글, 129쪽.
28) 집(거주)과 가정은 사람들이 장소 소속감을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로 일컬어진다. 맥도웰, 앞의 책, 1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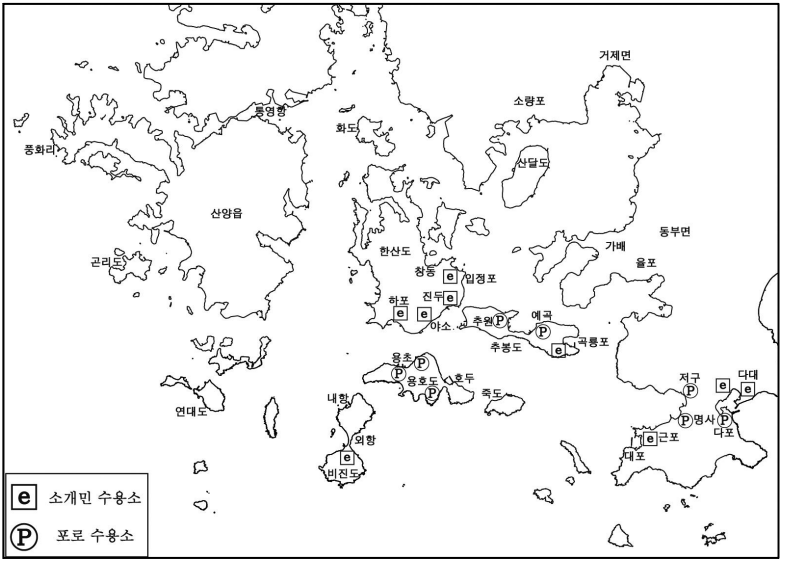
연계되어있던 오랜 경험과 의미의 단절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집과 고향을 세계의 중심으로 간주한다.[29] 따라서 취락(聚落)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우주의 파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30] 마을과 집으로부터의 '분리'는 기억의 장소와 단절되었음을 뜻한다. 장소가 파괴되면서 장소 고유의 경계성과 안정성이 무너졌다. 삶의 공간과 장소가 미군에 의해 철폐되고 와해 되었음에도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었다. 장소가 상실되었음에도 감히 대항할 수 없었기에 그때의 기억은 상흔처럼 남아 있다. 장소 상실의 결과는 강제 이주와 낯선 공간에 정착해야 했던 경험으로 이어졌다. 장소 상실은 삶을 영위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근거지를 잃었다는 의미이다.

3. 소개민으로 살아가기

용초도 포로수용소와 더불어 인근 추봉도에 '봉암도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었고[31], 추봉도와 마주하고 있는 거제도 저구리 일대에 '저구리 포로수용소'가 들어섰다.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었던 지역 마을 주민들은 모두 소개되었다.[32] 용초에서 쫓겨난 주민들(127세대 777명)은 먼저 가까운 친인척이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갔다. 식구가 많았던 사람들은 분산하여 이거하였다. 주민들은 임시변통으로 간단한 가재도구만 챙겨서 서둘러 마을을

29) 투안, 이-푸, 『토포필리아』, 이옥진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2011, 59쪽.
30) 투안, 앞의 책, 2005, 240쪽.
31) '봉암도 포로수용소'는 추봉도의 추원과 예곡 마을에 설치되었다. 추원과 예곡 주민들은 한산도 입정포와 진두, 그리고 추봉도 곡룡포에 마련된 소개민 수용소에 배치되었다.
32) '봉암도 포로수용소'가 설치되면서 소개되었던 예곡 마을(47세대 358명)과 추원 마을(80세대 451명) 주민들은 한산도 진두와 입정포, 그리고 추봉도 곡룡포 소개민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한산면지편찬위원회, 『한산면지(증보판)』, 2012, 411쪽. '저구리 포로수용소'가 들어서면서 소개되었던 저구 마을(60세대)과 다포 마을(60세대) 주민들은 다대 마을 소개민 수용소에 배치되었고, 명사 마을(50세대) 주민들은 근포 마을 소개민 수용소로 갔다. 이승철, 앞의 책, 151쪽.

빠져나갔다. 하지만 소개 기간이 길어지면서 주민들은 시나브로 식량 결핍에 직면하였다. 소개령이 발령되고 몇 개월 후 소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소개민 수용소가 마련되었다. 소개민 수용소는 포로수용소 인근 지역에 집중되었다. 용호도 주변 지역에 소개민 수용소가 설치되었던 곳은 한산도 입정포, 진두, 야소, 하포를 비롯하여 비진도 외항, 추봉도 곡룡포였다(〈지도 1〉 참조). 소개민 수용소는 원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기존 거주지 외곽에 설치되었다.



〈지도 1〉 용호도 주변 포로수용소와 소개민 수용소

용초 주민들은 비진도 외항과 한산도 야소 및 하포 마을 인근에 마련된 소개민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야소 벅수골에 마련된 임시 소개민 수용소에 약 20세대가 배치되었다. 이곳은 야소 마을에서 의암 마을로 나가는 바닷가 길목이었다. 일부는 곡룡포에 마련된 소개민 수용소로 갔다. 이들을 제

외한 용초 주민 대부분은 하포 소개민 수용소로 배치되었다. 하포 마을 골자갈에 설치된 소개민 수용소는 뒤로는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이 있고 앞은 해안선과 맞닿아 있었다. 비진도 외항으로 이주한 약 20세대는 밧섬 어귀에 마련된 판잣집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이곳은 바닷가와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돌출부여서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판자로 급조한 막사 형태의 건물은 문틈으로 새어드는 찬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다. 임시 건물에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온돌방이 필수적이었다. 가건물 형태의 방 구조를 온돌방으로 개조한 다음 방바닥이 빨리 마르도록 아궁이에다 장작을 한껏 넣었다가 불이 나서 건물 전체가 전소하고 말았다. 이곳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은 또다시 이재민 신세가 되었다.[33] 외항에서 이재민이 되었던 주민들은 하포 소개민 수용소로 재배치되었다.

소개민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용초 주민들의 이동 경로는 다양하였다. 대부분은 용호도 인근 섬으로 나가 임시로 거처를 마련했지만, 일부는 아예 충무(통영)나 부산 같은 도시지역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다음 〈표 1〉은 소개 경험자들의 구술을 정리한 것이다. 구술자들은 용초에서 소개되자 곧바로 이웃 섬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을 찾아갔다. 가족 수가 많았던 사람들은 분산하여 이거하였다. 이들은 처음 정착한 마을에서 거주하거나 다른 곳으로 떠나기도 하였다. 이후 식량을 배급하는 소개민 수용소로 들어가기도 하고, 일부는 친인척이 거주하는 마을에 따로 집을 짓거나 방을 얻어서 기거하였다.

33) 한산면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749쪽.

〈표 1〉 용초 마을 출신 소개민 경험 구술자

구술자 (출생/성별)	소개 당시 가족 구성원	이주 경로	소개민 수용소	비고
서○식 (1937/남)	조부모, 고모 3명, 부모, 본인, 형제 4명	산달도→소량포; 조부모, 고모 3명, 본인	하포	산달도에 작은할아버지 거주
		하포: 부모, 형제 4명		하포 외갓집
김○조 (1940/남)	조부모, 부모, 누나, 본인, 동생 4명	죽도: 조부모, 누나, 본인	하포	죽도에 작은할아버지 거주
		곡룡포: 부모, 동생 4명	곡룡포	
김○수 (1943/남)	조부모, 부모, 본인, 형(군입대)	하포	하포	하포 왕고모 거주
김○금 (1935/여)	부모, 본인, 여동생 3명	비진 내항→산양읍 풍화리	하포	내항 외갓집. 풍화리 이모집
김○애 (1930/여)	시부모, 시동생 2명, 시누이 1명, 본인, 남편, 아들 1명	비진 내항→호두: 본인, 남편, 아들		내항 외갓집, 호두 친정집
		하포: 시댁 친구	하포	

〈표 1〉의 구술자 서○식의 가족은 거제 산달도와 한산도 하포로 분산하여 이거하였다. 당시 산달도에는 작은할아버지가 거주하고 있어, 조부모와 고모 3명 그리고 손자인 구술자 본인이 이거하였다. 이곳에서 다시 맞은편 소량포로 이거하였다. 소량포에서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구 어장에서 일하였다. 부모와 형제 4명은 하포로 이동하였다. 하포에는 외갓집이 있었다. 이후 하포에 소개민 수용소가 설치되면서 가족이 함께 모여 살았다. 좁은 소개민 수용소에서 많은 식구가 모여 살기에는 애로 사항이 많았다. 구술자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홧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소개민 수용소에서 돌아가시자, 하포 마을 뒷산에 있는 공동묘지에 매장하였다. 하지만 하포 주민들이 자기 동네 공동묘지에 매장한다고 떼로 몰려와 분란이 일어났다고 한다. 고향 용초가 마주 보이는 곳이었지만, 고향에 매장하지 못하고 남의 동네 공동묘지에서 매장하면서 설움을 받기도 하였다. 소개민 수용소에서 거주하면서 아버지는 멸치잡이 권현망

선원으로 일하였고, 형과 구술자 본인은 주낙배를 탔다고 한다. 구술자는 소개 당시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중학교 진학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족의 생계를 도와야 했다. 봄철에는 가까운 바다에서 조기와 상어를 주로 잡았다고 한다. 음력 7월 이후에는 매물도 바다로 나가 주낙으로 조기를 잡았다. 그 당시에는 바다에 조기가 무진장이어서 주낙배가 던지는 낚싯줄 바늘마다 조기가 걸려 올라 올 정도였다고 한다. 주낙배를 타서 번 돈으로 보리를 사서 가족의 식량으로 삼았다. 쌀밥은 구경도 하지 못했던 시절이었다고 회상하였다.

구술자 김○조의 가족 역시 두 편으로 나뉘어 4명은 죽도로 이거하고 6명은 곡룡포로 소개 나갔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친동생이 죽도에 살고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 누나 그리고 구술자 본인은 죽도로 갔다. 소개 당시 6학년이었던 구술자는 죽도 국민학교에서 6학년 2학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졸업했다. 위 구술자처럼 용호 국민학교에 다니다 죽도 국민학교에서 졸업했던 동기생이 4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한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 4명은 곡룡포로 갔다. 곡룡포에는 추원 사람들이 먼저 소개를 나갔는데, 추원 사람 중에 고모부가 있었다. 먼저 이주했던 고모부가 곡룡포로 오라고 연락해서 그곳을 갔다고 한다. 처음에는 남의 집에 셋방을 얻어 살다가 나중에는 소개민 수용소로 옮겨서 그곳에서 살았다. 죽도로 나갔던 가족은 하포에 마련된 소개민 수용소로 이거하였다. 징발이 해제될 때까지 가족은 두 편으로 나뉜 채 살았다고 한다.

소개를 나와서도 아이들은 학교에 다녔다. 하지만 학년과 학기가 맞지 않아 한 학년을 낮추어 입학하기도 하였다. 구술자 김○수는 용호국민학교 2학년 재학 중에 소개를 당하여 왕고모가 살고 있던 하포 마을로 갔다. 하포에 설치된 소개민 수용소에서 생활하다가 창동에 있는 한산 국민학교에 다시 1학년으로 입학하였다. 그래서 동기생과 나이 차가 많다고 한다. 여섯 살 나이에 입학한 동기생이 있었는가 하면 또래보다 두세 살 많은 학

생도 다수 있었다. 소개민 수용소가 있었던 하포에서 창동까지 거리는 거의 10리 길이다. 학교로 가는 길은 하포 마을 뒷산을 넘어 신거, 망곡을 지나는 길과 하포에서 바닷가를 따라 의암, 야소, 진두, 입정포를 거쳐 가는 길이 있었다. 거리는 뒷산을 넘어가는 쪽이 약간 가까웠지만, 소요 시간은 비슷하였다. 위 구술자는 5학년 때 용호 국민학교로 돌아와서 졸업했다고 한다. 하포 수용소에서 생활할 당시 할머니와 어머니가 사망하였다. 두 분의 시신은 상여가 없어 아버지가 들채로 운반하여 하포 마을 뒷산 공동묘지에 매장했다고 한다. 할머니는 노환으로 사망하였지만, 어머니의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사망 이유를 두고 원래 묘지였던 곳에 소개민 수용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부정'을 탔다고 말하였다.

남성 구술자들과 달리 여성들이 기억하는 소개민 생활은 주로 땔감을 구하러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는 서툰 낫질로 어렵게 나무를 해 날랐던 경험과 깊은 골짜기까지 걸어 들어가 샘물을 이고 왔던 일들이었다. 구술자 김○금의 아버지는 용초 마을에서 이장(구장)을 역임하였으며, 어머니는 마을에서 막걸리와 소주 등을 팔면서 장사를 하였다. 집에는 머슴을 데려 두고 살았을 정도로 논과 밭이 많았다고 한다. 소개 전 오빠 두 명이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을 정도로 부유한 살림이었다. 소개령이 떨어지자 처음에는 비진도 내항으로 이주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구술자 본인, 그리고 여동생 3명이 함께 소개를 나갔다. 위로 오빠 셋이 있었지만 모두 혼인하였으며 분가한 상태였다. 살림과 가재도구가 많아 내항 마을 해안가 멸치 어장막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다 가재도구를 쌓아 놓고 살았다. 내항에는 외가가 있었다. 외가에는 외삼촌은 돌아가시고 외숙모님이 살고 있었다. 외갓집 뒷방에서 기거하였지만, 소개를 나갔던 계절이 여름철이라 주로 천막에서 살았다고 한다. 가족들은 비진도에서 다시 산양읍[34] 풍화리로 이주

34) 1995년 3월 통영군과 충무시가 통영시로 통합되면서 산양면이 산양읍으로 승격되었다.

하였다. 산양읍 풍화리에는 이모네가 살고 있었다. 그곳에서 빈집을 얻어 한동안 살다가 다시 하포 소개민 수용소로 거처를 옮겼다. 하포 수용소에서 1년 넘게 살았다고 한다. 소개민 수용소에서 땔감을 구하고 식수를 길어오는 일은 여성들의 몫이 되었다. 생계는 배급으로 받았던 식량과 소개 당시 가져갔던 가산으로 해결했다고 하였다.

구술자 김○애는 소개 당시 기혼이었다. 가난했던 시댁에서 큰 며느리로 살았다. 소개될 무렵 남편은 별다른 직업도 없고 징병 기피자 신분이어서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남편과 함께 외가였던 비진도 내항으로 갔다가 다시 친정집이 있던 호두로 이거하였다. 호두에서 따로 방을 얻어 놓고 살았지만, 경제적으로는 친정에 얹혀사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친정이 부자여서 식량은 주로 친정에서 가져다 먹었다고 하였다. 친정 식구들 보기가 부끄러웠지만, 소개를 나온 형편이라 변변한 일거리도 없었다. 시댁 식구들은 하포로 이거하였다가 이후 하포에 소개민 수용소가 마련되면서 그곳에 들어갔다. 구술자는 소개를 나가면서 자연스레 시댁과 분가를 한 셈이 되었다고 말했다. 소개가 끝난 다음 마을에 돌아와서도 살림을 합치지 않고 따로 살았다.

소개민들은 소개민 수용소에 입주해야 식량 배급을 받을 수 있었다.[35] 소개민은 소개민 수용소에 자신들의 신체를 수용하면서 '포로'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 소개민 수용소에 들어가면서 장소 이동은 멈추었지만, 그곳은 안전한 '집'이 아닌 임시 거처였다. 마을 주민들의 장소 이동은 자발적인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주민들의 장소 이동은 정부와 유엔(혹은 미군)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산물'이었다. 비자발적인 장소 이동은 사회적 지위 변화로 이어졌다. '주인'으로 살았던 마을에서 쫓겨나 낯선 곳에서

35) 거제도 지역과 달리 용초 마을 소개민들에게는 수수가 지급되었다. 배급받은 수수는 밥을 지을 수 없어 죽으로만 쑤어 먹을 수 있었다. 부산일보사, 『임시수도천일』, 1985, 684쪽. 수수죽을 먹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 배고픔을 잊지 못하고 있다.

'소개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했다. 남성들은 어부로 일하거나 돈벌이를 찾아 외지로 떠돌았다. 여성들은 아이들과 함께 소개민 수용소에 기거하면서 품삯 일을 하거나 이웃 마을 사람들의 농사를 거들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당시 소개민들의 삶은 근거지를 잃은 '난민'이나 다름없었다. 소개민들이 마을로 복귀하면서 소개민 수용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기억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4. 마을 복귀와 장소 재구성

1955년 3월 20일 용초도 포로수용소(귀환 국군포로집결소)가 폐쇄되면서 주민들은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36] 주민들의 귀향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주민들의 복귀는 형편에 따라 시나브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소개 나갔던 사람들이 모두 마을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37]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은 통영이나 부산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정착했다고 한다. 주민들이 온전히 귀향한 시기는 포로수용소 폐쇄 1년 뒤인 1956년 3월 경이었다. 마을로 돌아왔지만, 과거의 마을은 사라지고 포로수용소로 사용했던 건물과 시설물이 점령군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군용차가 왕래했던 도로, 미군 및 한국군이 주둔했던 막사, 군수품을 보관했던 창고, 식수를 저장했던 급수장, 그리고 소방서, 유치장, 발전소 건물 등이

36) 피난민들이 고향을 떠나 피난지에 정착한 것과 달리 소개민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피난민들은 피난지에서 생활공간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차철욱·공윤경, 「한국전쟁 피난민들의 정착과 장소성」, 『석당논총』 47,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0. 반면 소개민들의 정체성은 소개지에서도 고향 마을과 연계되어있었으며, 그들에게 소개지역 혹은 소개민 수용소는 임시 거처에 불과하였다.

37) 용초 마을 주민은 소개 직전 130여 호였지만, 포로수용소 폐쇄 이후 많은 주민이 돌아오지 않았다. 참고로 1992년 기준으로 용초 마을의 인구는 97호 318명이었다. 한산면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95쪽.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시설물들은 한국군 공병대가 철거하여 자재를 가져갔지만, 토지는 원상복구 시켜주지 않았다. 형질 변경된 토지와 구조물 철거 및 복원은 온전히 마을 사람들의 몫이 되었다.

마을로 돌아온 주민들은 국군 공병대가 포로수용소로 사용했던 건물들을 마구 해체하는 모습을 목도하였다. 공병대와 주민들 사이에 포로수용소 건물과 시설물의 소유 및 이용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행정 기관과 군부대, 그리고 마을 주민 대표자들이 한데 모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통영군수, 통영경찰서장, 한국군 공병대장, 마을 주민 대표, 한산면 유지 등이 통영 군청에서 연석회의를 가졌다. 회의 결과 군수 물자는 한국군이 모두 철거하여 부대로 가져가기로 하고, 마을 주민들은 포로들이 사용했던 막사 일부와 경비대가 사용했던 건물 몇 동을 인수한다고 결정하였다.[38] 주민들은 들어온 순서대로 포로수용소의 시설물을 임시 거처로 삼아 지냈다. 막사 건물에 입주한 주민들을 그곳에서 일 년 남짓 생활하였다. 주민 중 일부는 포로수용소를 해체하고 남은 자재로 새로 집을 지었다. 집 짓는 일 못지않게 시급한 일은 토지를 복구하는 일이었다. 변변한 장비 하나 없이 괭이와 소쿠리로 콘크리트 잔해를 깨고 치우고 바지게에 담아서 옮겼다. 지금 밭둑이나 담장에 남아 있는 콘크리트 더미는 당시 손으로 해체해서 쌓았던 것들이다. 온 가족이 달려들어 콘크리트 잔해를 치우고 토지를 일구었지만, 전답의 경계가 문제였다. 포로수용소를 건설하면서 경계를 허물어 놓아 어디까지가 누구의 땅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던 탓이었다. 대충 눈대중으로 자기 논과 밭을 일구었지만, 토지의 경계를 두고 분란이 끊이질 않았다.

미군들이 포로수용소를 설치하면서 경계가 지워진 마을은 고유성과 특수성이 상실된 울퉁불퉁한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 포로수용소는 위험한 자

38) 한산면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749쪽.

들이 거주했던 공간이었으며, 도덕적으로 불확실성의 장소였다. 위험하고 불안정한 장소를 허물고 '살기 좋은 마을'을 건설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마을 재구성과 함께 고유의 이름도 복원되었다. 포로수용소 '제1구역'은 '작은 몰'로, '제2구역'은 '큰몰'로 환원되었다. '제3구역'이라는 이름은 '큰 논골'로 바뀌었다. 마을 재구성 과정에서 지명은 마을의 '본질'을 확인하는 주요한 통로였다. 이방인이 그어 놓은 경계는 익숙하지 않았으며 일상의 경계도 아니었다. 낯선 경계는 마을 사람들에게 특정한 감정과 경험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다. 기존의 '장소'는 그 자리에 위치하지만, 더 이상 장소로서의 의미나 경험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마을을 재건하면서 지리적 경계는 새로 측정되고 표시되어야 할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분란이 많았던 토지의 경계는 측량으로 해결하였다. 마을에서 측량 기사를 주선하여 토지를 측량하게 하였다. 하지만 당시 측량 기술이 미흡하여 제대로 된 측량이 아니었다고 한다. 측량 기사는 마을 뒷산 측량 기점부터 커다란 대나무 장대를 이용하여 토지의 폭과 길이를 측량하였다고 한다. 이런 방식은 위에서 조금만 비틀어져도 아래쪽에서는 오차가 클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측량을 마쳤지만, 경계를 두고 다시 말썽이 일어났다. 토지 측량으로 자신의 토지가 늘어난 사람들은 찬성하고, 줄었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측량으로 결정된 토지 경계를 수용하는 수밖에 다른 해결 방도가 없어 그대로 인정되었다고 한다.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이 전답을 완전히 복구하는 데는 5~6년이 걸렸다. 전답을 복구하는 동안에는 식량이 부족하여 쑥과 톳을 섞어 지은 밥으로 연명하였다. 구술자들은 복귀 이후 새로 집을 짓고 농지를 복구하는 일도 힘들었지만, 항상 배가 고팠다고 기억하였다. 소개민 수용소에 기거하고 있었을 때는 배급 식량이 있어 굶지는 않았다. 하지만 포로수용소가 폐쇄되고 마을로 돌아오면서 식량 배급이 중단되었다.

집과 논밭을 복구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마을의 행정적 및 상징

적 중심지 복원이었다. 주민들은 마을 복구와 함께 서둘러 동사(洞舍) 건립을 추진하였다. 포로수용소가 설치되면서 여느 가옥과 마찬가지로 동사 건물 역시 파괴되어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동사는 마을의 행정적 업무를 집행하는 사무실이자 마을의 위상을 유지하는 공식적 기구였다. 포로수용소 폐쇄와 함께 귀환한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동사를 건립하였다.[39] 마을회관 건립 이후 마을의 숙원사업이었던 선착장을 건설하였다. 1964년 큰 마을과 작은 마을에 각각 두 개의 선착장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인 1965년에 완공하였다. 큰 마을에 길이 80m와 30m, 작은 마을에 80m와 20m 선착장이 건설되었다. 선착장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국방부에서 한산어업조합을 통해 배정하였다. 국방부의 예산 배정은 주민들이 포로수용소가 설치되면서 징발당했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후 보상을 여러 차례 요구한 결과였다. 즉 선착장 공사는 토지와 가옥 징발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었다.[40] 마을회관이 행정적 중심이라면 동제를 지내는 당산은 의례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포로수용소 설치 이전 용초 마을에는 작은몰과 큰몰에 각각 당산이 있었다고 한다. 제싯골 당산은 '산신당'이라고도 불렸으며, 제석(帝釋) 신을 모시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큰몰 당산은 본디 마을 바로 위에 있었다. 하지만 포로수용소 설치 당시 두 곳 모두 불도저에 밀려 파괴되었다. 귀환 이후 주민들은 마을 뒤쪽 망봉산(혹은 망개산) 자락에 새로 산신당을 건립하였다.[41]

마을이 복원되면서 사람들은 내부자라는 안정감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 재구성은 주민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부여하였다.

39) 당시 건립했던 동사 건물은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유실되었다. 1960년 마을 기금으로 다시 목조 3칸 기와집과 창고, 목욕탕을 갖춘 건물을 '마을회관'을 건립하였다. 1982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회관을 현대식 건물로 준공하여 회의실은 예식장으로 사용하였다.

40) 한산면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762~764쪽.

41) 용초 마을에서는 1979년까지 산신당에서 동제를 지내다가 이후 미신 타파를 앞세운 젊은 층의 반대로 동제가 중단되었다. 한산면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772~773쪽.

마을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고향'이라는 장소감을 느끼게 하였다. 마을이 재구성되면서 기존의 사회적 질서와 규범도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주민들이 복귀하면서 마을은 다시 하나의 행정 단위로 기능하게 되었으며, 마을 내외부의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연망에 따라 사회적 질서가 형성되었다. 마을은 안전과 안정의 중심이 되었으며, 상호 보살핌과 관심의 장이 되었다. 장소의 이름과 의미를 복원하면서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경험하게 되었다. 즉 폐허였던 공간을 장소로 만드는 작업은 기존의 질서를 복원하는 일이었을 뿐 아니라 중심과 주변을 구분하는 구조를 부여하는 일이었다.[42] 마을 재구성은 그동안 의미 있는 장소를 가지지 못한 환경 속에서 표류했던 비일상적이었던 삶에서 안정감과 함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일상적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하였다. 한마디로 마을 재구성은 진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무장소' 상태의 마을을 진정성을 가진 '장소'로 되돌리려는 작업이었다.

5. 포로수용소 흔적을 기념의 장소로

현재 용호도에 남아 있는 포로수용소 건물의 흔적은 포로 및 포로수용소와 분리될 수 없는 '장소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43] 이곳에 남아 있는 흔적을 통해 포로 혹은 포로수용소의 존재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포로

42) 장소 만들기는 세계를 질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중심들로 구분하고 경험을 반영하는 동시에 지침이 되는 구조를 부여한다. 랠프, 앞의 책, 290쪽.

43) 장소와 기억은 '기억의 장소'와 '장소의 기억'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기억의 장소'는 설계 도면이나 지도와 같이 공간성이 부각된 장소를 가리킨다. '기억의 장소'에서 장소는 기억이 발생한 곳과 분리가능한 개념이다. 반면 '장소의 기억'은 기억이 발생한 장소와 분리될 수 없으며 특정한 장소와 결부되어있는 비의지적 체험을 포함하고 있다. 이도담, 「문화적 기억과 장소에 관한 성찰」, 『철학과 문화』 36, 한국외대 철학문화연구소, 2016, 82쪽.

수용소의 흔적은 마을 주민들에게는 친숙한 장소가 아니다. 장소는 '흔적의 지속적인 구성물'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장소와 결부된 흔적들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44] 기념되는 흔적은 해당 집단의 문화적 선호와 관념을 상징한다. 흔적이 담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의미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와 평가가 혼재한다. 흔적에 대한 해석은 개인과 집단에 따라 다르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기도 한다.

마을 사람들에게 포로수용소의 흔적은 애착이 결여된 장소이다. 포로수용소의 흔적은 주민들과 심리적으로 단절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포로수용소가 설치되면서 익숙했던 '이곳'에서 쫓겨나 낯선 '저곳'에서 소개민으로 살았던 주민들의 경험과 기억은 '이곳' 포로수용소의 흔적이 아니라 '저곳' 소개민 수용소와 소개지 마을에 터를 잡고 있다. 따라서 '기념의 장소'로서 포로수용소의 흔적은 '우리'가 아닌 '타자'의 영역에 편입된다. '이곳'에 수용되었던 포로들은 이곳을 찾지 않는다. 그들 역시 이곳과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즉 포로수용소의 흔적은 과거 이곳에 수용되었던 포로들과도 단절된 장소일 뿐 아니라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경험 및 삶의 형식과도 괴리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애초 용초도 포로수용소는 아군이 아닌 '적군'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포로 교환 이후 귀환 국군포로들을 이곳에 수용하면서 아군(헌병경비대)이 아군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용초도 포로수용소'는 많은 기억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곳에 '악질 포로'들이 수용되었다는 기억이 다른 기억에 비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귀환 '국군 포로'들이 수용되었던 곳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45] 무엇보다 포로수용소가 설치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강제로 쫓겨났다는 사실은 제대로 기억되지도 않았다.[46] 어떤 기억을 더 강화하거나 다른

44) 앤더슨, 존, 『문화 · 장소 · 흔적』, 이영민 · 이종희 옮김,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3, 17쪽.
45) 전갑생, 「수용소에 갇힌 귀환용사」, 『역사비평』 118, 역사비평사, 2017.

기억을 기억의 자리에서 밀어내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장소는 환기시켜야 할 기억이 어떤 기억인지를 다투는 논쟁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47] 장소 기억은 과거를 현재에 소생시키는 장소의 능력을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장소 기억은 사회적 기억의 생산 및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48]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섬 지역에 설치된 포로수용소는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이 아니었음에도 포로들 사이에서 '이념전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선이 형성되었던 공간이었다. 용초 마을 입구에는 이곳에 포로수용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내판을 세워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안내판의 내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내용과 강조점이 달라졌다. 다음은 1990년에서 소개되었던 마을 〈표지판〉 내용이다.

> *"이곳 용초부락은 6.25사변 중 유엔군이 포로가 된 공산군을 수용하던 장소이다. 1952년 5월부터 입지조건이 좋은 이곳에 포로수용소를 설치하여 2천여 명에 이르는 포로를 수용하였으며, 이곳에 수용된 포로들은 동란 포로 중 가장 악질적인 포로로서 막사 사이에는 이중 철조망에다 원형 철조망 벽이 설치되었다. 수용소 설치 당시 주민들은 인근 부락으로 소개당했다가 휴전협정으로 재입주하였다."*[49]

위 표지판에 실린 내용은 용초 마을은 6.25 사변 중에 유엔군이 공산군 포로를 수용했던 장소이며, 가장 '악질적'인 포로들이 이곳에 수용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포로수용소가 설치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인근 마을로 소개당했다가 휴전 이후 '재입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990년

46) 전갑생 · 김민환, 앞의 글; 오연호, 앞의 글.
47) 크레스웰, 앞의 책, 2012, 139~140쪽.
48) 크레스웰, 앞의 책, 2012, 135쪽.
49) 오연호, 앞의 글, 126쪽.

표지판에는 이곳에 수용되었던 포로가 '2천여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이곳에 수용되었던 인민군 포로는 8천여 명이었다. 2020년 〈용초도 전쟁포로수용소〉라는 이름의 안내판이 새롭게 설치되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1990년 표지판의 문구와는 사뭇 다르다. 2020년 〈용초도 전쟁포로수용소〉 안내판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포로수용소는 제1거제도포로수용소의 포로인원 증가와 포로의 집중관리 차원에서 육지와 먼 거리에 설립되었다. 포로수용소가 설치되면서 주민들은 한산도 진두를 비롯해 여러 마을에 흩어져 소개민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수용소 사령부는 용호리 내 작은 마을과 큰 마을에 각각 1, 2구역 8개 수용동, 비진도와 마주 보이는 마을 뒤편에 3구역 8개 수용동을 설치했다. 수용소 외곽 경비는 한국군이, 수용소의 행정 및 관리 책임은 미군이 맡았다. 1952년 6월 30일부터 거제도에서 북한 인민군 장교 및 사병 8,040명이 이송되었으며, 1953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송환되었다. 연이어 북한 포로수용소에서 귀환한 국군포로들은 1953년 8월 5일부터 용초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사상교육 및 군사훈련을 받고 대부분 재입대하거나 귀향했다. 한편, 소개민 수용소에서 생활하던 주민들은 1954년 4월부터 마을에 들어와 복구 사업에 참여했으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아야 했다. 현재 포로수용소 잔존 유적지는 설립 머릿돌, 급수장, 한국군 근무지, 저수지 및 댐, 제3구역 수용동 등 20개소에 이르며 평화 ·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0년 안내판에는 용초도 포로수용소의 설치 배경, 마을 주민 소개, 포로수용소의 규모와 위치, 포로의 숫자, 귀환 국군 포로 수용, 포로수용소 잔존 유적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적시되어 있다. 2020년의 안내판이 포로수용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소개를 하고 있다면, 1990년 표지판은 포로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포로들이 이곳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포로수용소가 설치되면서 강제로 소

개 당했던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전자는 주민들이 마을에 들어와 복구 공사를 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간략하게나마 언급하고 있다. 반면 후자는 주민들이 인근 마을로 소개 당했다가 휴전협정으로 재입주했다고 무미건조하게 기술하고 있다.

마을 뒤편 산언덕에 안내판과 함께 남아 있는 두꺼운 시멘트 담장과 집수지, 그리고 산재해 있는 돌집의 흔적들은 이곳이 과거 포로수용소였음을 말해준다. 잔존물 중에서 깃대와 신작로의 흔적 등은 경비대와 관련된 것들이지만, 이곳에 국군경비대가 머물렀다는 기억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다. 1990년 표지판에는 남북한 포로 교환 이후 이곳에 귀환 국군포로가 수용되었다는 내용은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다.[50] 이곳에 수용되었던 귀환 국군포로의 흔적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다. 귀환 국군포로는 용초도 포로수용소가 '악질' 용공 포로를 수용했던 장소라는 공식적 담론과 배치되는 존재였기에 기억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용초도 포로수용소의 흔적은 국가적인 기념 대상 혹은 기억의 현장이 되지 못했다. 몇몇 지역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포로수용소의 흔적을 대중들에게 환기하기 전까지 이곳은 잊힌 곳이었다. 2015년 5월 〈용초도 포로수용소 복원사업 주민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용초도 포로수용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51] 통영시에서는 용초도 포로수용소의 '흔적'을 문화유산의 '장소'로 전환하려 대대적인 홍보와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다. 포로수용소 흔적 중에서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념하지 않아야 하는지는 지방정부 주도의 용역조사로 결정되고 있다. 통영시는 2015년 〈한산도(추봉, 용초) 포로수용소 기록화사업〉 및 2022년

50) 포로 교환은 정전협정을 전후로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공산군 측 포로는 83,000여 명이 돌아갔고, 유엔군 측 포로는 13,469명(한국군 8,343명)이 귀환하였다. 상당수의 국군포로가 송환되지 못한 채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 100쪽.

51) 『한려투데이』, 2015.05.12.

〈통영 추봉도와 용호도 포로수용소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 용역 사업을 발주하였다. 2016년 경남문화재연구소에서 〈통영 추봉·용초 포로수용소 기록화사업 부지내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통영시의 노력에 힘입어 2020년 10월 한산면 추봉도와 용호도에 설치되었던 포로수용소 유적이 경상남도 기념물 제302호로 지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와 현지 주민들의 노력과 함께 포로수용소의 흔적을 답사하는 연구자 혹은 전문가 집단이 증가하면서 폐허 상태로 방치되었던 흔적이 '유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2005년 10월 〈제1회 한국전쟁문학세미나〉 참석자들이 용초도 포로수용소를 방문한 이래 용초도 포로수용소 탐방이 연례행사가 되었다.[52] 2016년에는 학술단체에서 한국전쟁기 전국 포로수용소 답사를 기획하면서 용초도 포로수용소가 포함되었다.[53] 연구자 혹은 전문가 집단의 현장 답사는 포로수용소 흔적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환기할 뿐 아니라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학술 용역과 연구자들의 답사는 흔적으로 남아 있던 기념 장소가 새로운 장소로 전환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기억의 저편에서 '망각'의 형태로 남아 있던 폐허에서 대중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면서 기억을 되살려주는 '유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즉 포로수용소의 흔적이 기념의 장소에서 '기억의 장소'로 변화하고 있다.[54] 여기에서 기억의 장소는 특정한 장소와 물건을 포함하여 문학작품이나 정부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도 포함된다. 그동안 사라지거나 망각되었던 귀환 국군

52) 『연합뉴스』, 2005.10.05.; 『Newsis』, 2010.06.28.

53) 2016년 4월 서울대 아이사연구소 동북아 센터, 한국사회사학회 및 한국냉전학회가 공동으로 포로수용소 답사를 기획하였다.

54) 피에르 노라는 '기억의 터'와 '기억의 장소'를 구분하고 있다. '기억의 터'는 전통적 삶의 형식이 결부된 지속성으로서의 장소이다. 반면 '기억의 장소'는 단절되거나 파괴된 삶의 흔적을 보존하고 있는 장소이다. 노라, 피에르 외, 『기억의 장소① 공화국』, 김인중 외 옮김, 파주: 나남, 2010, 32쪽. 기억의 장소는 특정 사물이나 장소, 기억을 담고 있는 상징적 행위와 기호, 또는 기억을 구축하고 보존하는 기제들을 망라하는 개념적 틀이다.

포로들의 기억이 문학작품과 논문을 통해 소환되었다.[55]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 과정에서 미국문서보관소의 사진과 기록이 소개되면서 개인들의 기억이 '정정'되기도 하였다. 기록보관소에 저장된 기록과 개인들의 전기적 기억의 다름은 전자의 기록으로 수렴되었다. 즉 기록보관소에 저장되어있는 기록의 '순수성'이 개인들의 회상과 기억을 압도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기록보관소에 저장된 기억을 우선시한다면 역사적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전기적 회상의 특성과 분위기를 소홀히 취급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다고 개인들의 회상에 따라 과거를 기념한다면, 기억과 회상이 집단적 표지(標識)의 형식으로 표현된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다.[56] 과거 포로수용소를 경험했던 '포로'들과 소개를 경험했던 주민들이 시나브로 사망하면서 기록보관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즉, 기억의 보유자와 결부되어있는 개인적 차원의 '기능 기억'이 사라지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장 기억'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57]

6. 맺음말

1952년 한산면 용초 마을에 포로수용소가 설치되면서 이곳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은 강제로 소개되었다. 커다란 군함과 함께 갑자기 나타난 불도저와 트럭이 굉음을 일으키며 육지로 올라와서는 거주지를 허물고 농경지를 밀어버렸다. 미군들은 산허리를 따라 도로를 개설하고 곳곳에 겹겹으로

55) 용초도 포로수용소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으로는 김원일의 소설 『오마니별』(2008)과 박진홍의 국군포로 체험기 『돌아온 패자』(2001)가 있다.
56) 뵈메, 하르트무트 · 페터 마투섹 · 로타 뮐러, 『문화학이란 무엇인가』, 손동현 · 이상엽 옮김,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4, 206쪽.
57) 아스만, 앞의 책, 169쪽.

철조망을 치고는 막사를 지었다. 이에 앞서 미군들은 주민들을 쫓아내고 마을과 집들을 파괴하고 소각하였다. 마을의 파괴는 장소 상실을 의미하였다. 마을이 파괴되면서 물리적 형태로서의 장소가 사라지고 장소성마저 상실되었다. 장소성이 상실되면서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었다. 주민들에게 장소 상실은 소개민이라는 신분과 함께 일상의 삶이 붕괴되는 고통으로 이어졌다.

장소 상실과 이로 말미암은 공간 이동은 권력의 맥락에서 초래되었다. 마을이 파괴되면서 마을이라는 지배적 구조와 실천 양상이 허물어졌다. 강제로 소개된 사람들은 소개민 수용소에 '수용'되었으며,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이동하며 살았다. 포로수용소가 마을 주민들의 삶과는 무관한 낯선 공간이었던 것처럼, 소개민 수용소 역시 불안하고 소외된 느낌을 주는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었다. 마을이라는 사회적 경계는 그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경계 바깥의 이방인에게는 불안하고 위험한 그리고 적응해야만 하는 장치였다. 소개민은 고향 마을에서는 '내부자'였지만, 소개지 마을에서는 '외부자'였다. 낯선 공간에서 삶은 일상의 흐름이 굴절되거나 단절되었다. 일상의 흐름과 토대가 허물어지면서 일상생활은 비일상적 생활 혹은 낯선 생활이 되었다. 이들에게 '소개민'이라는 호명은 '이방인' 신세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기호로 작동되었다.

주민들은 1954년 3월 포로수용소 시설 폐쇄 이후 마을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마을로 돌아온 주민들은 먼저 가옥을 신축하고 헝클어졌던 토지를 복원하였다. 하지만 마을을 재구성하는 과정은 험난하였으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마을 재구성은 한마디로 장소감을 되찾는 작업이었다. 용초마을은 예전처럼 큰몰과 작은몰로 재구성되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집과 마을은 우주의 중심이다. 따라서 마을을 재구성했다는 것은 우주의 중심을 재구성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소감은 단순히 마을이라는 공간상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다른 마을과의 비교와 경쟁을

통해 마을의 고유성과 주민들의 정체성이 고양되었다. 용초 마을의 정체성은 이웃 호두 마을과의 경쟁으로 자극을 받았지만, 상황과 맥락에 따라 용호리라는 하나의 행정리를 단위로 묶어지기도 하였다.

마을 재구성 이후 장소의 기억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포로수용소의 흔적과 기억은 장소로서의 마을 만들기의 주요 재료로 동원되었다. 2010년대부터 포로수용소의 흔적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용초도 포로수용소의 잔해와 흔적은 공공의 기억을 담지하고 있는 문화적 장소로 급부상하였다. 2020년 '용초도 포로수용소' 유적은 경상남도 기념물(302호)로 지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용초도 포로수용소의 흔적을 세계기록(문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노력하고 있다. 즉, 용초도 포로수용소의 흔적과 기억은 전쟁과 포로를 직접적으로 되새기는 원천으로 작동되고 있다. 기념물 지정은 포로수용소의 흔적을 지난했던 과거를 담고 있는 '기념 장소'로 전환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용초도 포로수용소'의 역사는 다음 세대로 전승되지 않고 포로 교환 이후 곧바로 단절되었다. 단절된 역사는 지금까지 '폐허' 혹은 흔적의 형태로 남아 있었다. 흔적으로 남아 있던 특정한 장소를 기념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 단절되었음을 보여준다.

거제문화원향토사연구소, 『한국전쟁 65주년 거제도 피난민 유입과 소개: 문헌 수집 및 구술사업』, 2015.
경남문화재연구소, 『통영 추봉 · 용초 포로수용소 기록화사업 부지내 지표조사보고서』, 2016.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쟁 포로, 평화를 말하다』, 2018.
부산일보사, 『임시수도천일』, 1985.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산도(추봉, 용초) 포로수용소 기록화사업 용역』 최종보고서, 2015.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냉전평화센터, 『통영 추봉도와 용호도 포로수용소 종합정비계획 수립 최종보고서』, 2022.
한산면지편찬위원회, 『한산면지』, 1992.
_____, 『한산면지(증보판)』, 2012.

김민환, 「전투사 중심 재현을 넘어선 한국전쟁의 대안적 전시: 〈전쟁 포로, 평화를 말하다〉와 〈허락되지 않은 기억〉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32, 한국사회사학회, 2021.
김예림, 「전쟁, 소유, 박탈: 전시 '가옥상실'과 '가옥파괴'의 자리에서」, 『동방학지』 19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1.
김원일, 『오마니별』, 서울: 도서출판 강, 2008.
김태우, 「한국전쟁 연구 동향의 변화와 과제, 1950~2015」, 『한국사학사학보』 32, 한국사학사학회, 2015.
노라, 피에르 외, 『기억의 장소① 공화국』, 김인중 외 옮김, 파주: 나남, 2010.
랠프, 에드워드,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 김현주 · 심승희 옮김, 서울: 논형, 2005.
로웬덜, 데이비드, 『과거는 낯선 나라다』, 김종원 · 한명숙 옮김, 서울: 개마고원, 2006.
맥도웰, 린다, 『젠더, 정체성, 장소』, 파주: 도서출판 한울, 2011.
박진홍, 『돌아온 패자』, 서울: 역사비평사, 2001.
버틀러, 주디스 & 아테나 아타나시오우, 『박탈』, 김응산 옮김, 서울: 자음과 모음, 2016.
뵈메, 하르트무트 · 페터 마투섹 · 로타 뮐러, 『문화학이란 무엇인가』, 손동현 · 이상엽 옮김,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4.
신승현, 「한국전쟁 포로와 기억의 정동 공간: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용호도 포로수용소 폐허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아스만, 알라이다, 『기억의 공간』, 변학수 · 백설자 · 채연숙 옮김,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앤더슨, 존, 『문화 · 장소 · 흔적』, 이영민 · 이종희 옮김,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3.
오연호, 「특별포로수용소 용초도」, 『월간말』 90(9), 1990.
윤미애, 「문화적 기억의 공간과 서울이야기」, 『카프카연구』 17, 한국카프카학회, 2007.
이도담, 「문화적 기억과 장소에 관한 성찰: A. 야스만의 『기억의 공간』을 중심으로」, 『철학과 문화』 36, 한국외대 철학문화연구소, 2016.
이승철, 『6.25전쟁과 그때 그 시절』, 거제: 거제향토사연구소, 2018.
전갑생, 「해제: 한국전쟁기 전쟁포로수용소와 문서의 역사적 의미」, 『거제근현대문헌총서 VI: 거제도포로수용소 중요문서』, 번역 김일환 · 공준환 · 곽귀병 · 하지은, 감수 및 해제 전갑생, 2016.
_____, 「수용소에 갇힌 귀환용사: '지옥도' 용초도의 귀환군 집결소와 사상심리전」, 『역사비평』 118, 역사비평사, 2017.
전갑생 · 김민환, 「포로수용소의 설치 및 해제와 주민들의 고통: 제주 · 통영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58,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2018.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서울: 선인, 2010.
차철욱 · 공윤경, 「한국전쟁 피난민들의 정착과 장소성: 부산 당감동 월남 피난민마을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47,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0.
크레스웰, 팀, 『장소』, 심승희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2.
_____, 『온 더 무브』, 최연석 옮김, 서울: 도서출판 앨퍼, 2021.
투안, 이-푸, 『공간과 장소』, 구동회 · 심승희 옮김, 서울: 도서출판 대윤, 2005.
_____, 『토포필리아』, 이옥진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2011.

『한려투데이』, 2015.05.12. "용초도, 전쟁 막는 평화의 섬이자 치유의 섬 추진".
『연합뉴스』, 2005.10.05. "거제서 제1회 한국전쟁문학세미나".
『Newsis』, 2010.06.28. "거제문인협회, 전쟁문학세미나 마련".

| Abstract |

Place Experience of the Evacuated during the Korean War

- Focusing on the Oral Statements of Yongcho-do People in Hansan-myeon, Tongyeong City

Park, Jeong-Seok

During the Korean War, residents of Yongcho-do were forced to leave the village when the Yongchodo Prisoner of War(POW) Camp was established in Yongcho village, Hansan-myeon. Those who were kicked out of their land wandered from place to place and were held in camps for the evacuated. As they forcibly evacuated, they lost their bases of life and means of livelihood, but also became the subject of military or legal violence. The evicted persons subjected to economic violence from the state, along with the hurtful name of "the evacuated". Institutional violence in the form of evacuation deprived their own lives and pushed their daily lives into the realm of instability. The evacuated had taken various types of place experiences through loss of place and movement of place. It took a long time to reconstruct their place or the village, that had been dismantled. The experiences and memories of residents in these process are multi-layered and overlapping. Until now, most studies related to war memories have focused on public records created by the state on the one hand, and memories with accumulated individual experiences on the other. Public records and private memories sometimes overlap each other. However, there is only a difference that the one becomes history because it is recorded, and the other is forgotten because it is not recorded.

Key Words: Korean War, Yongchodo POW Camp, Yongcho Village, The Evacuated, Place Experience

· 논문투고일: 2023년 8월 7일 · 심사완료일: 2023년 10월 16일 · 게재결정일: 2023년 10월 24일